

광양 농특산품, 중국 시장 진출 '속도'

시, 사면 투자무역상담회 참가... 해외 판로 확대 발판 수출입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세계 시장 도약 지원"

광양시가 국제우호도시이자 중국 경제 특구인 푸젠성 사면시와 농특산품 수출입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한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까지 사면시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투자 무역상담회에 실무대표단을 파견.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진행한다.

사면 국제투자무역상담회는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세계 100여개국의 정부 대표단과 기업이 참가하는 중국 최대 무역·투자 플랫폼 가운데 하나다.

이번 대표단은 국제협력과 농산품 유통 분야의 실무직원 4명(팀장 2명,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에 열리는 제26회 상담회의 공식 참가를 앞두고 사전 준비 성격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사

운영 경험을 축적하며, 농특산품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단은 전남도 기획관 내 광양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농특산품 홍보·해외 판로 개척, 현지 외국상품 전문 판매·유통점 방문 및 특산품 입점 협의, 투자무역 교류회 참가, 사면 국제협력원 및 산업단지 내 상담세션 참여, 사면시 외사관공실과의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정승재 청강항만과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은 광양 농·특산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출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질적 교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호도시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 산업과 농·특산품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시는 인구 360만명의 푸젠성 대표 항만도시로, 1981년 중국 4대 경제특구 중 하나로 지정돼 공업과 물류가 발달했다.

광양시는 2007년 사면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뒤 향만물류, 농산물 수출, 전통예술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무역상담회 참가 등 다각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고흥,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추진

어선 3036척에 6852벌 보급

고흥군은 어업인의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선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어선원의 구조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 5억1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 협약을 맺은 뒤 향만물류, 농산물 수출, 전통예술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무역상담회 참가 등 다각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구입 비용의 80%를 군이 지원하며, 어

업인은 1벌당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된 허가 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의 소유자이며,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수까지 구명조끼를 지원한다. 다만 1인 승선원 신고의 경우 2벌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이며, 고흥군 관할 수협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인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 '빛의 카페' 붓재 새 단장 빛 연출...복합 힐링 공간 조성

보성군이 대표 관광지인 붓재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 차별의 절경과 빛의 연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카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차별을 조망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휴식처를 마련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감이다. 기존 벽체를 철거해 사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차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카페 내부에는 '물결'과 '반딧불'을 형상화한 고보라이트 조명이 설치돼 은은한 빛이 공간을 감싸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기존 전시 공간은 '우주'를 모티브로 한 조명 연출로 꾸며져,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2층 카페 '그린다향'의 메뉴도 즐길 수 있다.

보성 특산물인 말차를 활용한 말차아이스크림라떼, 말차흑당버블, 말차팔빙수 등 다양한 음료 46종과 디저트 7종이 마련돼 차별 전망과 함께 특별한 미각을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붓재는 보성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경관·빛·맛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붓재를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센터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홍보를 강화해 '녹차수도 보성'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최근 화순군은 춘란 문화 대중화와 경쟁력 높은 미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도승 춘란 재배교육장 개소식을 가졌다.

'춘란 대중화' 한국 난 산업화 성큼

화순, 도승 춘란재배교육장 개소

춘란 문화 대중화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한국 난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춘란 문화 대중화와 경쟁력 높은 미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도승 춘란 재배교육장 개소식이 개최됐다. 개소식에는 구북구 군수를 비롯해 류기춘 전남도 의원, 조영복 변영회장, 배용일 화순난연합회장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도승 춘란 재배교육장 건립은 2024년 1월 군정 운영회의에서 이양면 특수 시책으로 선정. 이양면 오류리 674-6번지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재배교육장 내부는 기계실과

재배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재배 온실은 1칸당 15.2㎡ 크기에 총 12칸으로 분리 설치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선정된 교육장은 향후 들어서 340억원 규모의 한국 난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해 춘란의 재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연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북구 군수는 "갈수록 농촌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화순 춘란이 이양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승 춘란 자치위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안정 지원 강화... 내년 2월 27일까지 적용

여수시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 등이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지정은 여수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에 따라 각종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여수시

소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거나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훈련비 단가의 70%에서 130%까지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자부담률은 완화돼 0~20%가 적용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은 월 200만원(총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최대 2500만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는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꼼꼼히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담양 창평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구체화

19일 창립총회 정관 승인 등

담양 창평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창평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매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마을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도시재생대학은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은 이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창평면의 특성을 살린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향후 추진할 모델



을 모색했다.

특히 선진지 견학에서는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실무 감각을 키우고,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창평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등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